

부산, 울산 및 경남 소재 물리치료(학)과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남건우[†] · 하미숙

춘해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with the Clinical Training Programs in Busan, Ulsan, and Gyongnam

Kun-Woo Nam[†] · Mi-Sook Ha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Received: April 30, 2014 / Revised: June 23, 2014 / Accepted: June 24, 2014

© 2014 Journal of Kore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establish effective clinical training programs by identifying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with those programs.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205 students from six colleges (two 4-year and four 3-year colleges) who participated in clinical training programs. The colleges have physical therapy departments and are located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A survey consisting of 75 questions was conducted between March and December, 2003. Survey responses were analyzed through a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multiple responses approach, and correlations among the questions were analyzed using a chi-square test.

Results: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 programs did not differ according to the school system or the size of the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However, several factors led to a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including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the clinical training, more intensive instruction from school professors, a larger number of subjects to complete before the clinical training, and a higher level of student perception that their institution's clinical training program was systematic

Conclusion: This study surveyed physical therapy students located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who attended selected schools and training institutions that have their own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may have limitations for comparative analysis. However, if more extensive studies are performed regionally in the future using the approach taken here, clinical training programs could be developed that can satisfy both schools and the industry.

[†]Corresponding Author : Kun-Woo Nam (kwnam@ch.ac.kr)

* 본 논문은 2013년도 춘해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조성된 것임.

Key Words: Clinical training program, Clinical program satisfaction, Physical therapy

I. 서론

우리나라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은 3년제와 4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양 교육, 전공 이론교육 및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물리치료를 양성 및 배출하고 있다.

임상실습 프로그램은 보건계열 학생에서 중요한 모든 전공교과의 통합체로서 학생이 습득한 이론과 지식을 실무에서 적용하는 기회를 통해 보강, 통합하도록 하여 지식, 기술, 태도 면에 행위변화를 줄 수 있고 후일 정규 물리치료사로 근무할 때 물리치료사로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다. 또한, 전공지식의 이해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물리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훈련시켜 환자를 대하는 학생들의 생각과 자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중요한 과정이다(Jarski et al, 1990; Ko et al, 2011).

KPTA(2010)는 물리치료 임상실습 교육은 물리치료사 양성기관에서 행하는 교육과정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학생이 지도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관찰, 참관 및 실제 치료를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임상실습의 경험은 학생들이 지식을 통합하고 전문직 역할을 사회화하고 전문적 가치를 습득하기 때문에 전문직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Kang, 1998), 충실한 이론교육을 갖춘 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하여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강의실에서만 배우던 이론들을 직접 현장에서 적용시켜보며 보건과 의료의 본질에서부터 물리치료의 기능과 업무 등을 실제로 체험하는 동시에 물리치료과 각 전문분야를 거치며 임상실습 교육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전공이론과 임상실습과의 차이로 인한 환경에 대한 부적응, 학생의 수준에 맞는 체계적 교육의 부족 등으

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Cho, 1992; Kim, 1998). 이는 임상 실습기관 및 임상실습 지도자의 임상실습 학생의 실습에 대한 명확한 지도 방침이나 실습지침서와 실습상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표준화된 실습 기준 평가 방법 등이 제시된바 없이 임상실습 기관이나 임상 실습 지도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Lee, 1996; Shim, 2000). 그리고 임상실습 현장은 완전히 통제될 수 없는 환경에 의해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Shin & Im, 2010), 임상실습 교육에 회의를 느끼거나 흥미를 잃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기대에 어긋나는 임상실습 경험으로 위축해지거나 좌절할 수도 있다(Kang, 2010; Kim, 2003). 그러므로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을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기관의 부족한 환경요인을 계획하고 수정 보완해야하며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저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예방하여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의 향상을 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 전공 학생의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확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물리치료(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Kang(2003), Kim(2007), Jeon(2009)의 선행연구에 착안하여 실습 전 준비, 실습 프로그램, 실습기관, 실습지도, 그리고 학생 태도 총 5항목에서 임상실습 교육관련 특성과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을 통해, 임상실습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부산, 울산 및 경남에 소재한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6개 대학(교)(4년제 2개 학교, 3년제 4개 학교) 재학생들 중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임상실습 프로그램 경험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게 선정하였다.

2. 측정방법 및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문항은 Kang(2003), Kim(2007), Jeon(2009)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을 참고하여 학과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개발된 설문항은 신뢰도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하였다(Chronbach's $\alpha = 0.948$).

3. 실험 절차

설문지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후 배포 및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 병원 임상실습을 위한 학과교육 현황 7문항, 병원 임상실습 현황 4문항, 실습 전 태도 6문항, 학과교육 만족도 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19문항, 실습병원 만족도 12문항, 실습지도 만족도 5문항, 실습을 마친 학생의 만족도 8문항 등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발송된 설문지는 총 250부 중 205부 회수 되었다.

4. 자료분석

설문지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모든 설문항 중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문항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및 각 설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 다중응답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설문항 간의 연관성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 = 0.05$ 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 총 205명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분포는 남학생 55명(26.83%), 여학생 150명(73.17%)이며, 학제 분포는 3년제 학생이 143명(69.76%), 4년제 학생이 62(30.24%)명이었다. 학년분포는 2학년이 31명(15.12%), 3학년이 140명(68.29%), 4학년이 34명(16.59%)이었으며, 실습기간은 8주 111명(54.15%), 10주 22명(10.73%), 12주 5명(2.44%), 16주 35명(17.07%), 20주 32명(15.61%)으로 나타났다. 실습을 참가한 횟수는 1회 142명(69.27%), 2회 34명(16.59%), 3회 12명(5.85%), 4회 15명(7.32%), 5회 이상이 2명(0.98%)이었고, 참가한 실습기관의 종류는 1차 의료기관이 19명(9.3%), 2차 의료기관이 69명(33.6%), 3차 의료기관이 104명(50.8%), 기타 실습기관이 13명(6.3%)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학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1) 학제에 따른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대학 학제에 따른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는 '만족 한다'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이 3년제 재학생 전체 143명 중에 86명(60.14%), 4년제 재학생 전체 62명 중 44명(70.97%)으로 나타나 4년제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학년에 따른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2학년이 전체 31명 중 24명(77.42%), 3학년이 전체 140명 중 88명(62.86%), 4학년이 전체 34명 중 18명(52.94%)으로 학년에 관계없이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p < 0.05$)(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5)

Characteristics	Division	Frequency (person)	Percentage(%)
Gender	Male	55	26.83
	Female	150	73.17
School system	3-years	143	69.76
	4-years	62	30.24
Grade	Second year	31	15.12
	Third year	140	68.29
	Fourth year	34	16.59
Training period	8 weeks	111	54.15
	10 weeks	22	10.73
	12 weeks	5	2.44
	16 weeks	35	17.07
	20 weeks	32	15.61
Training frequency	1time	142	69.27
	2times	34	16.59
	3times	12	5.85
	4times	15	7.32
	Over 5times	2	0.98
Training facility	Local clinic	19	9.27
	Hospital	69	33.66
	General/University Hospital	104	50.73
	Other	13	6.34

3) 학과 교수의 실습지도 시기에 따른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실습전 지도가 총 156명 중 93명(59.62%), 실습중 지도가 총 23명 중 18명(78.26%), 실습후 지도가 총 8명 중 8명(100%)이 만족하였다. 학과 교수의 실습지도 시기는 실습중 교육과 실습후 교육에 비해 실습전 교육

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3).

4) 실습 전 교과목 이수에 따른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전공과목의 과반수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전체 166명 중 111명(66.87%), 전공과목의 과반수 미만을 이수

Table 2.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in the grade

(unit : person)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χ^2	p
		Very satisfy	Satisfy	Common	Dissatisfy	Very dissatisfy		
Grade	Second	6	18	6	1	0	7.22	0.01*
	Third	26	62	50	2	0		
	Fourth	3	15	10	5	1		

* $p<0.05$

Table 3.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in the professor's guide

(unit : person)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χ^2	p
		Very satisfy	Satisfy	Common	Dissatisfy	Very dissatisfy		
Guide period	Pre training	25	68	55	7	1	9.73	0.00*
	During training	5	13	4	1	0		
	Post training	2	6	0	0	0		

*p<.05

Table 4.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in the subject completion

(unit : person)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χ^2	p
		Very satisfy	Satisfy	Common	Dissatisfy	Very dissatisfy		
Completion (%)	≥80%	9	9	4	0	0	8.52	0.03*
	<80%	11	39	13	2	0		
	<60%	13	30	32	4	0		
	<40%	1	15	15	1	1		
	<20%	0	2	2	1	0		

*p<.05

한 학생은 전체 38명 중 18명(47.37%)이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실습 전 전공 교과목을 많이 이수한 학생일수록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4).

3. 임상 실습기관의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1) 임상 실습기관의 적합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분석

총 205명 중 132명(64.39%)이 실습을 다녀온 의료기관이 임상 실습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고, 9명(4.39%)이 부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2) 임상 실습기관의 규모에 따른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1차 의료기관 은 19명 중 8명(42.11%), 2차 의료기관 은 69명 중 53명(76.81%), 3차 의료기관은 104명 중

64명(61.54%), 기타 실습기관은 13명 중 9명(69.23%)이 만족하였고, 실습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3) 임상 실습기관의 실습 프로그램 체계성에 따른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임상 실습기관의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전체 92명 중 77명(83.70%), 비체계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전체 34명 중 15명(44.12%)이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5).

4) 실습 지도강사와의 관계에 따른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실습지도 강사와 친밀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총 136명 중 109명(80.15%), 실습지도 강사와 어색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총 8명 중 2명(25.00%)이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지도 강사와 친밀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Table 5.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in the systemicity

(unit : person)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χ^2	p
		Very satisfy	Satisfy	Common	Dissatisfy	Very dissatisfy		
Systemicity	Excellent	19	12	3	0	0	46.74	0.00*
	Good	8	38	12	0	0		
	Common	6	32	37	4	0		
	Bad	2	11	12	1	1		
	Worst	0	2	2	3	0		

*p<.05

Table 6.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supervisor

(unit : person)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χ^2	p
		Very satisfy	Satisfy	Common	Dissatisfy	Very dissatisfy		
Relationship p	Very positive	24	23	6	0	0	63.68	0.00*
	Positive	7	55	20	1	0		
	Common	3	16	38	4	0		
	Negative	1	1	2	1	1		
	Very negative	0	0	0	2	0		

*p<.05

나타났다(p<0.05)(Table 6).

직접 행하게 하는 실습기관이 67명(17.74%) 순으로 나타났다.

5) 학생들이 만족하는 임상 실습기관의 환경적 특성 분석

실습지도를 체계적으로 행하는 실습기관이 108명(28.62%)으로 가장 높았고, 많은 환자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실습기관이 101명(26.74%), 대인적인 분위기가 좋은 실습기관이 88명(23.33%), 물리치료 실무를

4. 실습생들의 실습참여 적극성에 따른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한 학생은 전체 153명 중 116명(75.82%), 실습에 소극적으로 임한 학생은 전체 5명 중 1명(20.00%)이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

Table 7.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in the student's attitude

(unit : person)

		Clinical training program satisfaction					χ^2	p
		Very satisfy	Satisfy	Common	Dissatisfy	Very dissatisfy		
Attitude	Very active	18	29	9	0	0	36.49	0.00*
	Active	12	57	25	3	0		
	Common	5	8	29	4	1		
	Passive	0	1	2	1	0		
	Very passive	0	0	1	0	0		

*p<.05

으로 나타났다. 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할수록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Table 7).

5.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분석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만족 한다’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 205명 중 130명(63.41%)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물리치료(학)과 임상실습 프로그램은 교내에서 교과서를 통해 이론적으로 배운 물리치료학 전공지식을 물리치료실 현장에서 대면하는 환자들에게 활용하는 중요한 물리치료 현장실무 교육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물리치료(학)과 개설 대학이 대학교 부속 의료기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 프로그램 교육의 세부 내용은 임상실습 프로그램 교육을 의뢰받은 물리치료실(실(팀)장)의 역량에 맡겨져 학과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대부분의 경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상황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는 현재 물리치료(학)과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교육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임상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임상실습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임상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의 63.41%가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보통 수준보다 약간 만족하여 Choi(199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학 특성(학제, 학년, 실습지도, 교육과정)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3년제 학생에 비해 4년제 학생이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oi(1996)의 연구에

서도 4년제 학생들이 3년제 학생들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최근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대학들이 증가되면서 저학년부터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반면(Lee & Park, 1993), 임상실습기관들의 대부분이 학년에 따른 차등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Kim 등(2004)의 연구에서는 학년과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학과 교수들의 실습지도의 시기도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실습 전 실습 지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실습중이나 실습 후 실습 지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것은 임상실습 전 실습지도의 부적절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기보다 학생들이 낯선 환경의 실습기관에서 경험하는 생소한 현장실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과 정서적 불안감을 학과교수를 통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Kim(2003), Park(2012)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전 실습지도가 대부분 시행되고 있으나 만족도가 더 높은 임상실습 중과 임상실습 후 실습지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과의 교육과정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실습 전 교과목 이수자가 많을수록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Lee(2003)는 응답자의 63.1%가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이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 반면, 대학에서 배운 전공이론과 실무의 차이로 인해 40% 이상의 학생들이 갈등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Kim, 1998; Kim et al, 2004; Cho, 1992). Yun(2012)은 임상실습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현장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수의 내실 있는 실습수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습기관 특성(규모, 실습 프로그램)에 따른 만족도

의 차이를 보면,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3차 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지만, 실습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임상실습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과 Ahn(2012)의 연구에서도 실습기관의 규모와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많은 타 보건계열 학과의 선행연구에서는 실습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Kim, 1998; Kim, 2010; Park & Kim, 1998).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전공의 차이와 시대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규모가 클수록 많은 환자를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건계열 실습환경과 달리, 물리치료(학)과 임상실습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특정 질환에 대해 전문화된 재활병원이 최근 증가되면서 소규모 실습기관에서도 물리치료학 전공영역에서 비중 있는 질환 환자를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임상기관을 선정하여 임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An & Ahn, 2012).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성 역시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이 임상실습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라고 인지할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05$), Kim 등(2004), Kim 등(201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생의 실습참여 적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한 학생이 소극적으로 임한 학생보다 약 4배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Choi(1996)의 연구에서 학업 성적별로 임상실습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A~C학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D학점 집단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의 평소 학업태도와 실습태도가 거의 같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임상실습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았지만 무엇보다도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유기적인 조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임상사례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도를 하는 의료기관과 실습 지도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습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유기적인 산학협력 등의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Jang, 1998; Park, 2012). 또한 최적의 실습환경을 갖춘 실습장소와 실습환경의 마련이 요구되며 학생의 실습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Jang, 1998; Park & Nam, 2007).

V. 결론

본 연구는 부산, 울산 및 경남 소재의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전공 학생들의 임상실습 프로그램 시행 현황과 학생 만족도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병원 임상실습의 방안을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를 부산, 울산 및 경남지역에 소재한 대학 물리치료(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물리치료(학)과 대학마다 실습병원 및 실습기간, 횟수 등이 상이하고 병원 임상실습 전 시행되는 교육정도와 학년별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임상실습 만족도의 객관적 비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학제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지만, 실습시작 시기가 저학년이고 실습에 연계된 이수 교과목이 많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고, 실습과 함께 이루어지는 학교교수의 실습지도에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볼 때, 학과 차원에서의 임상실습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단계적이고 전문적인 임상실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과거 대규모의 실습기관을 선호하는 경향과 달리 학생들은 실습기관의 규모보다는 기관 내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실습지도 강사의 자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적인 산학교류를 통해 대학은 보다 임상실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실습기관은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통일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의 준비되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산학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임상실습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An SJ, Ahn SY. The present status and recognition of physical therapy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hysical Therapy Science*. 2012;19(2): 43-53.
- Cho H. An analytic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experience in psychiatric ward. *Journal of Red Cross College*. 1992;14:63-80.
- Choi BO. A study on degree of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hysical therapist*. 1996;3(3):339-350.
- Jang SG. The survey for improvement in clinical practice curriculum of physiotherap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1998;5(3):43-58.
- Jarski RW, Kulig K, Olson RE. Clinical teaching in physical therapy: student and teacher percep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1990;70(3):173-178.
- Jeon OB.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for social welfare majoring students' satisfaction degree on field training majoring students' satisfaction degree on field training. Kyunghee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9.
- Kang HJ. A study on student satisfaction with social work field practice. Ewha Womans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3.
- Kang HO.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eimyung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0.
- Kang JH. A study on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 in delivery room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8;19(2):203-211.
- Kim EJ. A Study on the Student Satisfaction with Social Welfare Practicom. Chongju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7.
- Kim HJ. A study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the student majoring clinical pathology at healthn junior college. Hanyang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1998.
- Kim HO. A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 of the nursing students at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Journal of Suwon Women's University*. 1998;24:5-22.
- Kim JK, Park SY, Lee TY, et al.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on the clinical fieldwork.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04; 12(1):69-82
- Kim MW. An analysis of stress factor of students majoring physical therapy due to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Masan University*. 2003;6:177-196.
- Kim SS, Seo HK, Kim BG, et al. The effect of clinical training in physical therapy: based on local area. *Journal of Korea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Association*. 2012;10(1):19-23.
- Kim SY, Kim CH, Song JY, et al. An investigation of factors which influence physical therapy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University Trained Physical Therapists*. 2004;11(3):71-84.
- Kim YS. A study of th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clinical training institute. Hanyang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0.
- Ko SJ, Kang SS, Kim CS, et al. Study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y students in department of radiologic scie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adiological*

- Science*. 2011;34(4):287-296.
- KPTA.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of physical therapy. South Korea. Hyunmoonsa. 2010.
- Lee HO. A study of development planning for physical therapy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Jisan Nursing & Health College*. 1996;14:29-46.
- Lee SJ, Park YG. A survey on attitude related to physical therapy students's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1993;5(1):25-37.
- Lee TR. The status of clinical practice by som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osmetic. chosun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3.
- Park DS, Nam KW. A correlation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EMT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2007;11(3):47-64.
- Park JM, Kim SS. Comparison study of satisfaction levels on field practice of EMT college students by 5 practice field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1998;2(2):7-25.
- Park SM. Influencing factors on the satisfaction of the paramedic students in clinical train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2.
- Shim HS. The status of clinical practice by dental hygiene student at kwangju · chonnam area colleges. Chosun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0.
- Shin SG, Im IC.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and related variables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0;10(9):276-284.
- Yun YH. A study on determinants of student satisfaction for the field education in social welfare: focused on student's of social welfare major in cyber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2.